

선교는 의무인가, 특권인가?

성경 본문	마태복음 28:16~20
요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19절).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이과의 목표	선교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이 특권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전 세계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지금까지 해 온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II. 생각 넓히기

1.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 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즉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서 최고의 명령이기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19-20절에는 그 명령이 어떤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어지는 내용, 즉 “세례를 베풀고”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제자를 삼는 실제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에서 주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 하나이고, 나머지는 모두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명령이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의 요청이고, 부탁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동일한 언어와 문화권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반드시 다른 나라들로 가야 한다는 전통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길 건너이든지 바다 건너이든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야 하는 대상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삼기 위해 나아갈 때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줍니다.

선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모든 민족”과 대칭되는 표현이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당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 역시도 땅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 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행 1:5). 제자들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 부르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길을 가시다가, 혹은 자신이 계시던 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제자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명령도 하셨습니다. 선교에 대해 말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부르심과 사명의 아름다운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큰 부르심 안에 우리 각자를 향한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름 받은 각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명이고, 각 성도가 받은 사명의 핵심이 선교입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선교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9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선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다양한 선교 사역 중의 하나임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선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중요성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정의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교회는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ecclesia)가 ‘밖으로(ek)’와 ‘부르다(caleo)’의 합성어인데,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편지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고전 1:9, 새번역). 바울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갔던 강력한 동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부름 받은 이들의 모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라’는 명령을 받아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 (Apostolos)들의 모임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아포스톨로스 (Apostolos)는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다를 항해하는 함대나 외교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절단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들을 보내는 정부나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고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사로운 목적이나 의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이 사도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한 임무, 즉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아포스톨로스들이 것입니다.

명령은 누구에게나 의무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성도들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관점으로 선교를 보면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특권이고, 특권은 마음껏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함께하심’과 ‘성령충만’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선교는 명령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름 받은 이들에게만 주신 주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느낄수록 선교는 마치 못해 해야하는 의무라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부담은 줄어들고, 열정은 커질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명령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 부름 받은 한 선교사

지난 2001년, 아프리카 중부의 작은 나라 부룬디에서 한 미국 출신 선교사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1940년 대 초에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에 와서 약 60년 동안 주변 여러 나라들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축하 순서가 시작되었고,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은 “당신은 사람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축복송을 현지어로 번역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평생을 함께 사역하다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인근 나라에서 부모님을 이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손자들 또한 아주 많아져서 대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서 중에 현지에서 입양된 손녀들이 자신들의 할머니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안겨드리는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순서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분의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들고 있는 마이크가 무거워 보일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진 노년의 선교사는 먼저 자리를 함께 해준 많은 분들에 대한 인사로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에 대한 감사와, 젊은 시절 소명을 받고, 함께 그 소명을 위해 일할 남편을 만난 일, 그리고 아프리카로 와서 겪었던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동안의 세월에 대한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지 두어 번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분이 남긴 마지막 한 마디의 말이 모두의 가슴을 울리며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다 갖추어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갖추게 해 주십니다” (God does not call the qualified. He qualifies the called).



III. 생각살기

1.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어떤 실제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2. 당신의 일상에서 선교를 향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